

## 임플란트와 구강암 : 심어도 될 때와 심지 말아야 할 때

김 동 옥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임플란트는 현대 치의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치료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백반증과 같은 전암병소가 존재하거나, 구강암 또는 두경부 암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는 원치 않는 심각한 합병증들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인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들어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 로봇을 이용한 구강암 수술 및 3D 프린팅을 동반한 재건 기술의 발달로, 치과의원에서 만날 수 있는 환자들의 임플란트 치료의 금기와 적응의 영역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형성증, 백반증과 같은 전암병소가 환자에서 임플란트 치료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할 때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임플란트와 구강암 치료의 최적의 교차점을 찾아내어 환자 중심의 치료 목표를 통한 구강암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적인 결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MD, 세브란스 병원 인턴
- \*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PhD
- \* 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부교수